근현대사 관통한 기억의 흔적, 작품으로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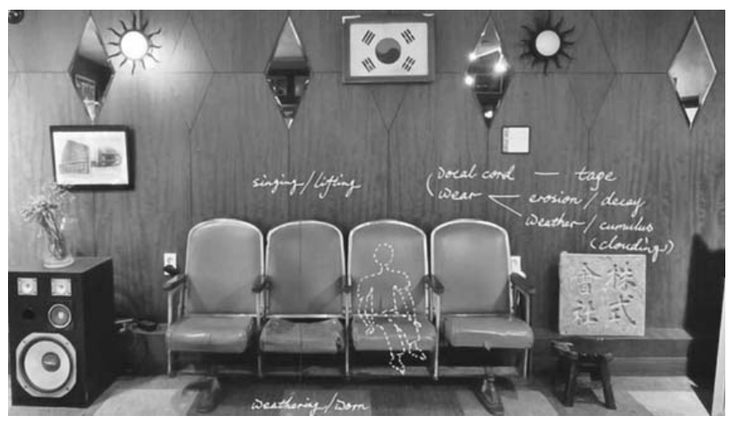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19〉 광주극장



영국 IVAE(International Visual Arts Exchange) 장소특정적 전시…오는 15일까지





광주의 근현대사를 지켜온 광주극장에서 과거의 기억과 동시대 예술이 만나는 IVAE 파빌리온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왼쪽부터 함경아 作 'Untitled'과 판리 作 'Worncumulus: A Weathered Song'

90여년 극장 역사에 응답한 장소특정 신작, 동시대 예술로 풀어내
검열 흔적부터 영화 속 대사·어린 시절 기억까지 입체적으로 조명

90년 넘게 광주의 근현대사를 지켜온 광주극장이 과거의 기억과 동시대 예술이 만나는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첫선을 보이는 IVAE 파빌리온은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을 무대로 장소특정적 전시를 오는 15일까지 선보인다.

국내외 작가 5명은 극장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사회적 의미에 응답해 제작한 신작을 통해 광주와 한국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다.

영국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IVAE(International Visual Arts Exchange)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강절흥과 육문연이 큐레이팅을 맡았고 아오노 후미아키, 함경아, 장파, 판리, 장페이리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IVAE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오해와 번역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장소특정적 미술 실천을 연구하는 단체로, 이번 파빌리온에서는 미술과 영화, 문학, 역사,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소개한다.

아오노 후미아키의 '광주극장의 사람 : 1935-2026'(2026)은 극장 곳곳의 표지판과 포스터에 축적된 정보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전남광주와 주변 지역에서 수집한 일상의 사물과 파편을 활용해 크기와 자세가 서로 다른 인간 형상의 입체물을 재구성했다. 작품은 극장 건축과 어우러지며 영화와 일상의 세계가 겹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함경아는 광주극장이 겪어온 시대의 폭력과 회복의 흔적을 '멍'이라는 물리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붉은색에서 보라색과 검푸른색, 녹색과 황색으로 변화하는 멍의 색을 통해 충격과 압박, 소멸과 회복의 시간이 한 공간에 중첩돼 있음을 드러낸다.

극장 일부 좌석에는 검열 문서와 삭제된 대사, 영화 제목, 사라진 필름의 길이 등이 자수로 새겨진다.

작가는 좌석을 피부에 비유하고, 그 위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지워진 기억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파의 '이 방에는 눈이 있다'(2026)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시선과 검열, 신체의 관계를 탐색한다. 무엇을 보여주고 배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영상 편집과 선택의 구조를 살피며 영화관을 이미지와 시선을 조직하는 하나의 장치로 제시한다.

다채널 사운드 설치 작품 'Worncumulus: A Weathered Song'(2026)은 서로 얽히는 두 층의 소리로 구성된다. 돌아가는 테이프와 공회전하는 카세트테이프, 라디오 잡음 등 기계적 반복과 오작동의 소리에 상상 속 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겹쳐진다.

광주극장 곳곳에 설치된 사운드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시간이 남긴 마모의 흔적을 불러낸다. 작품은 명확한 서사보다 반복과 소진, 끊어짐과 이어짐의 감각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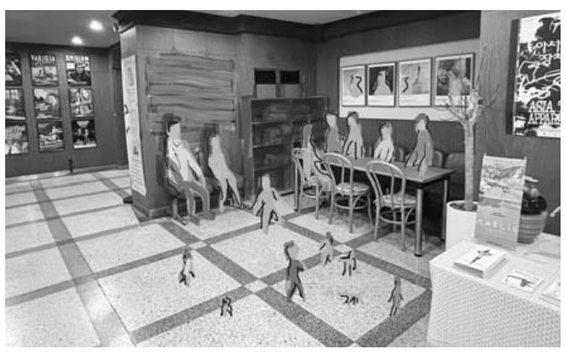
장페이리의 'Actor's Lines'(2026)는 한국과 북한, 중국의 고전 영화 장면을 원래의 서사에서 분리해 재구성한 작품으로 인물의 표정과 단어, 대사를 발췌해 서로 다른 화면 속 등장인물들이 기존 영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부르고 응답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장페이리 作 '여성의 목소리'

전시 장소인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1일 문을 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가운데 하나다. 일제강점기 지역의 조선인들이 자본을 모아 설립했으며 영화 상영뿐 아니라 창극과 판소리, 연극,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무대로 활용됐다. 해방 이후에는 김구의 강연회와 음악회 등이 열렸고, 1968년 화재로 재건축한 뒤에도 단관 극장의 구조와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2000년대 이후 복합 상영관의 확산 등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독립·예술·고전 영화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직접 그린 대형 영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극장 내부에는 과거의 사진과 공연 기록, 입장권 장부, 영사기, 검열의 흔적을 보여주는 임검석 등이 남아 있다. 최근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이유로 광주극장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오복 기자







왼쪽부터 장페이리 作 '혁명의 시퀀스', 아오노 후미아키 作 '광주극장의 사람들(1935-2026)', 장파 作 '이 방에는 눈이 있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



CMYK